

# 野, '양정철-서훈 비공개 회동'에 맹폭

아권은 28일 총선정국이 다가오는 민감한 시기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서훈 국정원장의 최근 비공개 회동에 대해 "비밀", "공작회동", "정보 관련선거" 등으로 빗대어 공세를 퍼부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당 실세와 정보기관 수장의 회동을 두고 "한 사람은 총선 준비하겠다고 나와서 조지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또한 다른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국정원의 책임자"라며 "지금 이 시기에 두 분이 만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내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총선을 1년도 채 앞두고 있는 아주 민감한 시점에 대해 왜 정보기관 수장이 선거 실세와 만나야 했는지 국민들의 의구심은 감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있다"며 "여당 내 공천 추천지에 대한 정보수집, 야당 축기 위한 정보수집, 선거 앞두고 모든 대북정보 및 대내정보의 수집통신 국정원을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등 여러 시나리오가 있다"고 전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정원의 국내정치 관여를 제1차로 물어야 하며 국

한국당, 서훈 국정원장 고발...바른미래당 사퇴 촉구

“국정원 총선 개입 의혹 부를 수 있는 심각한 사안”

“야당 탄압공작 의심” “내년 총선 앞두고 북풍 우려”

정원 본인 기능마저도 마비시키려 한 정권, 그런 정권이 아닌 국정원장이 여당 실세와 밀회로 아예 대놓고 직접 선거에 개입하겠다는 것이냐"며 "최대의 정보 관련 선거가 시작된 것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양 원장과 서 원장의 만찬회동을 "심야 공작회동"으로 규정하고 "야당 탄압공작 부정선거공작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의심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이은재 의원은 "국가 정보를 총괄하는 엄청난 자리인 국정원장이 대통령의 측근 요청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서 만난 것은 정보기관장 자질을 의심케 한다"며 "서훈 국정원장은 책임을 느끼고 스스로 거취를 표명해야 할 것"이라고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바른미래당도 현 정부 실세로 불리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의 심야 회동을 놓고 국정원의 총선 개입 의혹을 부를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총선을 불과 10개월 앞둔 민감한 시기에 국정원장이 여당의 총선전략을 책임지는 대통령의 최측근과 장시간 만난 것은 국정원의 정치개입 시비를 조장하는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나아가 두 사람이 대체 무슨 얘기를 나눴느냐에 따라서 국정원의 총선 개입 의혹을 부를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표는 "정외대는 국정원장과 대통령 최측근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도 최소한 주의라도 주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상식적인 대응이다"라며 "정외대와 국정원장

을 비롯한 여권 전체가 이 사안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몹시 오만불손하며, 국민을 무시하고 있다. 사안의 본질을 흐리고 책임을 회피하는데 급급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이동 원내부대표는 "서훈 원장과 양정철 원장의 4시간 회동은 일과 후 '사적인 만남'이 아니라 '금지된 만남'이다"라며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막기 위한 국회의 제도적 노력이 아무리 커도 이처럼 이러한 노력을 보란 듯이 무력화시키는 국정원장과 여당 심크랭크 원장의 비정상적 만남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장이 이해훈 의원은 양정철 원장이 사적인 만남이라고 해명한 데 대해 "독대기 아니라 문제가 분명히 있다. 독대기면 더 문제가 있다"며 "양정철 원장은 총선 승리의 범람기지가 되겠다고 들어와서 불과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수많은 총선 관련 행보를 했다. 총선 전략을 짜는 분이 북한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수장인 서훈 원장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고 반문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노무현재단이 27일 공개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합동 방송 '홍카X레오' 예고편.



## 유시민·홍준표 유튜브는 '홍카X레오'

사전녹화 후 내달 3일 방송 공개  
변상욱 진행...자유로운 토론방식  
기본 구독자 100만명 이미 확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유튜브 합동 방송을 진행했다. 정치권 유튜브 스타인 두 사람이 맞대결하는 합동방송은 다음달 3일 오후 10시 공개된다.

합동 방송의 이름은 '유시민의 알릴레오'와 '홍준표의 홍카폴라'를 따 '홍카레오'로 정해졌다. 노무현재단은 27일 재단 유튜브에 방송 예고편을 공개했다.

합동 방송 사회는 변상욱 YTN 앵커가 맡았다. 방송 형식은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지만 두 사람이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토론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분량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방송은 사전 녹화를 통해 진행되고 알릴레오와 홍카폴라가 각각의 편집본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릴 예정이다.

홍 전 대표는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반대 진영의 이론가나 토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판단 자료를 제공하는 건 아주 유익한 기회라고 본다"며 "최우가 극심한 대립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양 진영 유튜브 논객이 거대 담론을 두고 토론하는 건 한국 사회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두 사람은 정치권에서 가장 많은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스타 정치인이다. 28일 기준 알릴레오의 구독자는 81만 명, TV홍카폴라의 구독자는 28만명이다. 양측 기본 구독자만 이미 100만 명을 넘긴 셈이다.

뉴시스

## 與 “당리당락에 국가안보 위협”...황교안·강효상에 파상공세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 유출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긴급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서 이해찬 대표와 조세영 외교부 1차관(왼쪽에서 두번째)이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한미정상 통화내용 유출 논란과 황교안 대표의 군사합의 무효 선언 발언을 놓고 한국당에 대한 파상공세를 이어갔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를 열고 "국정 동반자이나 제1야당인 한국당이 눈앞의 이익을 쫓느라 국가안보

를 위협하고 국가분란을 하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 사안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대책 마련을 위해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 대표를 비롯해 조정식 정책위의장, 원혜영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의장, 안규백 수석 부의장, 민홍철 부의장, 이수혁 부

의장 등과 정부에서 조세영 외교부 1차관과 박재민 국방부차관이 참석했다. 애초 참석 예정이었던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을지태극연습 훈련 일정에 참석했다.

이 대표는 "제가 지난주 황 대표에게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낸 분이 말씀을 삼가달라고 부탁드렸는데 또 다시 군은 정부, 국방부와 입장이 달라야 한다며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발언을 했다"며 "민주주의 국가든 군대가 국민이 선출한 정부와 다

긴급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개최...강경화는 일정상 불참  
李 “황교안, 사과해야...강효상 비호에 한국당 관여 의심”

른 입장을 가져서는 절대 안 된다. 황 대표는 본인 발언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정말로 숙고해야 한다. 국민에게 사과하고 발언을 당장 취소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또 강효상 의원은 개인의 영달 위해 한미동맹까지 정쟁의 도구로 삼았다. 지금 한국당이 강 의원을 비호하는 입장을 내놓는 것을 보면 개인일탈이 아니라 제1야당이 관여한 행위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국익을 수호해야 할 외교관을 이용해 정부에 대한 무분별 비방 활용 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사익을 위해 국가기밀을 악용하고 당리당락을 위해 국가 조지를 동원하는 국정농단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원혜영 의장 역시 "강 의원의 외교 기밀 유출은 정말 충격적이다. 입만 열면 한미동맹의 중요성 부르짖던 한국당이 엄청난 일을 저지른 강 의원을 싸고도는 건 그간 보여준 모습이 모두 다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것이었음이 드러났다"며 "누가 진정한 한미동맹 방해자인지 스스로 입증했다"고 일갈했다.

원 의장은 "한국당은 분노한 국민 앞에 조속히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여당은 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해 만에 하나 외교적 위기, 안보 위협이 더 이상 확산되는 일 없게끔 민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 박지원 “구의역 사고 3주기 변한 것 하나 없어...반성”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28일 서울 구의역 사고 3주기를 맞아 "변한 건 하나도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분발을 촉구하고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반성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비슷한 사고가 전국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고, 특성학교 실습은 더 악화됐다. 졸업생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취직, 특성학교고는 비정규직 등용문이라는 보도가 나온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교육부, 노동부,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청년들이 우리 보다는 더 나은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오늘 하루부터라도 그들의 좌절, 고통에

함께 하고 희망을 이야기 해 주자"고 덧붙였다.

2016년 5월28일 서울 지하철 구의역에서는 스크린도어를 혼자 설치하던 김 모 군이 스크린도어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김 군의 가방에서 작업용 장갑과 컵라면이 발견돼 안타까움을 자아낸 바 있다.

한편 이은아 전국특성학교졸업생노조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구의역 사고가 3년이 지났지만 실질적 변화는 없으며 오히려 학습형 실습 제도가 도입되면서 업무는 그대로, 급여라 할 수 있는 실습비는 종전 150만원 수준에서 20만원으로 줄었다고 전했다.

지역구감리·매장장·정문직별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야호의 꿈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Drawing 이호동

062-960-6980  
광산구 사암로 340번안길 5

광산구